



스칸디나비아는 유럽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반도이자 이 지역의 역사를 이른다. 보통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3국을 가리키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유사성으로 핀란드와 아이슬란드까지 포함된다. 스칸디나비아의 영토는 116만 5000km²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을 합친 크기와 비슷하다. 2200만 명에 이르는 인구 대부분이 해안 인근이나 농작을 할 수 있는 남쪽 지역에 살고 있다. 스칸디나비아의 언어는 올드 노스(Old Norse,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아이슬란드에서 8~14세기에 사용한 언어)에서 파생된 북게르만어를 쓰며, 핀란드는 인도유럽어의 피노우그리어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가 언급된 첫 문서는 서기 1세기 대(大)플리니우스(Pliny the Elder)의 저서 '자연사(Historia Naturalis)'이다. 그 후 10~13세기 기독교가 전파됐고,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가 덴마크 여왕 마르그레테 1세의 통치를 받았다(칼마르 동맹). 1523년 스웨덴 왕 구스타브 1세가 이 연맹에서 탈퇴했고, 연이어 루터파의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1814년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분리된다.

안데르센의 스칸디나비아 찬양

'스칸디나비아'란 단어는 덴마크의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이 1839년 스웨덴을 방문해 정치적으로 스칸디나비아주의를 지지하면서 쓴 '나는 스칸디나비아인'이란 시에서 사람들에게 각인됐다. 안데르센은 "나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인들의 관계를 한 번에 이해했다. 이 감정으로 덴마크에 돌아간 즉시 이 시를 썼다"며 이 시에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며, 스칸디나비아인이라 부른다"라고 언급했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특징은 공통적인 역사와 문화, 종교적 원천을 나누는 동시에 자연에 대한 친근감이라고 할 수 있다. 1년 중 9개월이나 지속되는 겨울의 어둠, 짧지만 밝은 여름의 기후는 스칸디나비아의 실내 디자인을 '정돈(orderliness)'과 '간소(austerity)'로 특징짓게 했다. 비교적 가구가 적은 실내와 이로 말미암아 생긴 넓은 공간은 기나긴 겨울에 부족할 수 있는 빛을 넉넉히 품게 해 준다. 일반적으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에 대해 차갑고



핀란드에서 전하는 북유럽 디자인의 매력
자연을 품은 간결함
오, 스칸디나비아!

이희숙 디자이너·저널리스트 leeheesook@hotmail.com

노르웨이의 가정집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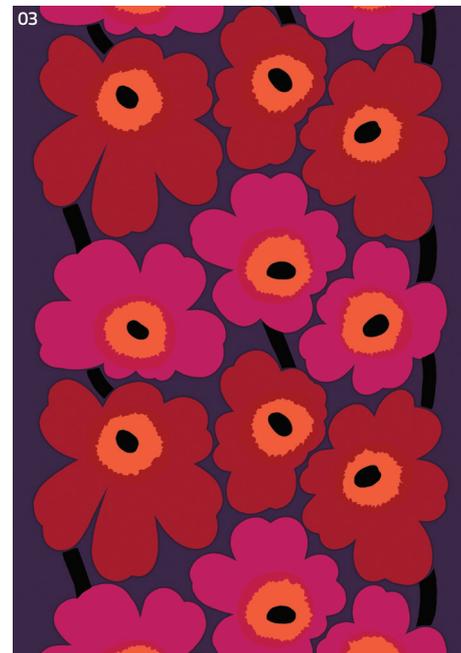




➤ 나무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에서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원자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긴 겨울은 농부들에게 격리되다시피 한 환경 속에서 실내 디자인 재료의 특징을 다각도로 연구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01 스웨덴 가구 디자이너 브루노 마트손(Bruno Mathsson)이 인간성의 따스함을 표현한 '의자 이브(Eva chair)'(1936), 실제로는 the Arbetsstol-working chair.
02 노르웨이 가구 디자이너 페테르 옵스비크(Peter Opsvik)의 인체공학을 바탕으로 한 '흔들의자(Balans Variable sitting tool)'(1979). photo by Tollefsen.
03 마리메코 수석 디자이너이던 마이야 이솔라(Majja Isola)의 우니코(Unikko)는 2012년 핀란드항공(Finnair)과 파트너십을 맺고 항공기 디자인에 이바지하고 있다.



미니멀리스트(minimalist)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따뜻하고 유기적인(organic) 재료로 만든 가능성을 겸비하고 있다.

나무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원자재로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연재의 속성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긴 겨울 동안 격리되다시피 한 농부들은 자급자족을 위해 원재료를 맨손으로 사용해야 했고, 이는 재료의 특징을 다각도로 연구하는 계기가 됐다. 또 서유럽과 미국에 비해 다소 늦은 산업화는 스칸디나비아인들을 장인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 외에 글라스와 세라믹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에 주로 사용된다. 혁신적(innovative)인 디자인, 안락한 섬유, 미래를 지향한 플라스틱, 금속의 장식성, 고품질 철로 만든 대담한 제품은 디자이너들의 풍부한 아이디어와 결합해 광대한 스펙트럼을

완성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형태, 기능, 색깔, 질감, 견고성과 가격 간에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다. 알바 알토(Alvar Aalto), 아르네 야콥센(Arne Jacobsen), 타피오 비르칼라(Tapio Wirkkala)는 자연에 기초를 둔 디자인으로 형태와 기능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단순성과 명확한 선 및 유기적 형태의 조화로써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처음 형성된 것은 1954년부터 3년에 걸쳐 미국과 캐나다를 순회하며 'Design in Scandinavian'이라는 전시가 열리면서부터다. 스칸디나비아 건축 역시 20세기 초 산업화가 한창일 때만 해도 잠잠한 상태였다. 1930년대 독일의 바우하우스 운동(20세기 초반 독일의 미술학교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건축, 미술, 가구, 공예 섬유미술 등 예술 전반에 걸쳐 일어난 디자인 혁신 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스칸디나비아

건축은 자연환경에 최적화되고 인간과 사회 요소들을 포함한 건물로 확장되며 주목받았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과 건축이 자연에 대한 친근감과 기능주의라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국가적으로 살펴보면 독자성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리, 경제, 사회 및 정치적 조건 외에도 각 나라 국민들의 성격을 반영한다는 점이 이채롭다.

국가별로 다른 디자인 경향

덴마크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유럽 대륙, 스칸디나비아 북쪽, 발트 해를 경계하는 나라들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아메리칸 셰이커(Shaker), 동양의 세라믹과 가구는 덴마크 해상 활동의 결과다. 이곳 디자이너들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향을 자신들의 문화와 결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을 추구해 왔다. 스웨덴의 주요 경제 품목은 철과 목재다. 이런 이유로 많은 회사가 광대한 삼림과 수력발전 자원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세워졌다. 이 때문에 1930년대 초까지 스웨덴의 도시 인구는 지방 인구보다 많지 않았다. 1960년대에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스웨덴 정부는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새 건물 짓기에 집중했다.

노르웨이가 원자재 수출국으로 알려진 것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석유산업의 성장에 기인한다. 사실 여러 해 동안 노르웨이 제품들은 '디자인'과 상관없이 생산됐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디자이너들이 스스로 디자인 국가라며 성장하는 동안 노르웨이 디자인은 조용하며 은둔하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현재 노르웨이 기업들은 그들의 생산 품목에 디자인을 반영, 급성장하고 있다. 1993년 노르웨이 디자인, 건축, 도시 개발센터인 노르스크 포름(Norsk Form)이 노르웨이의 디자인을 이해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발족된 것이 좋은 예다.

핀란드 건축에 대해 '현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건물 대부분이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20세기 말까지 전문 건축가를 양성하지 않았다. 이 학술적 전통의 결핍은 오히려 장점이 됐다. 핀란드 건축가들은 그들의 디자인 태도에 개방(openness)과 공명정대(impartiality)함을 반영했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핀란드의 기후와 어려운 환경 조건에 잘 적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활화산 지역 가운데 하나로서 자연환경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인구는 희박하다. 이는 특수한 섬유와 원자재의 사용에서 나타난다. 아이슬란드 디자인이 '약간의 다름'이라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자재가 풍부하지 못한 아이슬란드는 대신 그래픽 아트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가구, 단순함의 미학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의 현대적 개념은 1930년대 스웨덴의 기능주의에서 시작되었다. 가족과 가정을 중시하며 손님에게 청결, 안락, 안전을 부여하는 도구로서 스웨덴 가구 디자이너들은 옛 가구에 현대 기술과 아름다움을 주고자 재료 선택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들은 가정 소품에서 건물에까지 공급되는 풍부한 숲을 '녹색 황금(Green Gold)'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스타일이 변하는 옛 가구와 달리 생활하기 편한 실용적인 현대 가구를 단풍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참나무로 만들었다. 바우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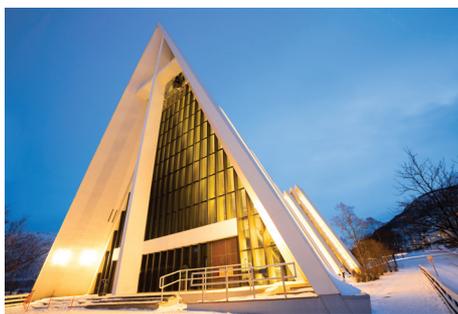
정신에 고취된 현대의 스칸디나비아 가구는 환상적인 디자인과 장식에 제한을 가했다. 명확하게 자른 선, 자연적인 곡선, 부드럽고 둥글게 각진 가장자리, 칠하지 않은 원목을 특징으로 삼았다. 1930년 알바 알토와 1970년 브루노 마트손(Bruno Mathsson)의 의자는 지금도 따뜻함을 안겨 준다. 1930년대에 스웨덴에는 기능주의가 도입됐지만 덴마크는 고전적인 수공가구의 인기가 지속돼 이 영향을 늦게 받았다. 한편 풍부한 상상력과 우아함을 특징으로 기업생산을 한 핀란드에 비해 노르웨이는 덴마크, 스웨덴처럼 작은 규모의 공장에서 가구를 제작했다.

디자인 강국 핀란드의 힘

디자인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핀란드는 이웃 나라와 달리 혁신적인 해결책과 우수한 제조 결과로 독자적인 디자인 경제 붐을 즐기고 있다. 오늘날 아라비아(Arabia) 세라믹과 이탈리아(Iittala) 글라스는

> 핀란드의 알토 대학은 디자인의 국제화 교육을 위해 2010년 헬싱키의 기술, 경제, 예술과 디자인을 담당할 3개 대학을 합쳐 설립되었다. 핀란드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디자인 강국으로 떠오르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노르웨이 트롬소에 있는 교회.



위대한 옛 디자이너들을 연결하는 동시에 현재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협동한다. 핀란드 디자이너들은 눈과 손을 즐겁게 해 주며, 순수한 기능을 넘어서서 송고한 디자인을 마련해 주는 자연과의 깊은 뿌리를 시각화한다. 재료에 대한 공감, 기능의 고려, 공예전통의 지식을 합해 만든 제품은 단순함과 솔직한 디자인으로 표현된다. 이는 생존을 위한 오랜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또 다른 특징은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다. 지나친 공예는 억제되고 효과적으로 장식되었다. 전통은 현대적 요구를 충족시킬 때 허용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문화유산에서 핀란드식 형태를 찾고 있다.

핀란드디자인포럼(Design Forum Finland)은 핀란드 디자인의 국내외 홍보를 위해 1980년에 발족한 이래 디자인 프로젝트, 세미나, 전시회, 책 발행, 디자인상, 미디어 서비스, 디자인 회사 방문 등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곳의 정보 담당자인 안네 베이놀라(Anne Veinola)에 따르면 핀란드 디자인의 인기 이유는 기능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되며,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민주적 철학 아래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젊은 디자이너들은 핀란드 디자인의 오리지널리티를 재해석하기 위해 자연을 다시 찾으며, 특히 핀란드 동쪽 카렐리아 민속품의 장식 모티프를 디자인에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49년에 설립된 핀란드의 유명 패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마리메코(Marimekko)'는 올 가을 패션에 주위 환경의 계절적 변화를 반영시켜 1920~1930년대의 기하학적 무늬와 동시에 풍부한 가을 정원이 안겨다 주는 아름다움, 원시적인 민속 무늬에서 영감을 찾았다. 조용한 톤에 활기찬 컬러를 강조함으로써 마리메코의 현대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반면 실제 텍스타일은 기후 변화와 핀란드인의 생활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안네 베이놀라는 미래 디자인 전망에 대해 무형디자인(immaterial design)의 산업 세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비디오 게임(핀란드의 앵그리버드 게임은 이미 알려졌음), 디지털 디자인, 웹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또 환경적(ecological)으로 재생 가능한 재료로 만든 디자인 제품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참고로 핀란드의 알토 대학(Aalto University)은 2010년 헬싱키의 기술, 경제, 예술과 디자인을 담당할 대학 3개를 합쳐 디자인의 국제화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다. 핀란드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디자인 강국으로 부상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①